

전남도, 1억 이상 고소득 농가 6140호 '역대 최다'

축산 2499호·해남군 753호 1위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 효과 성공 사례 청년농·귀농인에 전파

전남도는 '2022년 농어소득, 이전소득' 등을 통해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역대 최다인 6140호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시설 원예에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남도장터, 흡소평을 활용한 온라

인 판매 지원 등을 추진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경영 형태별로 축산이 2499호(4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량작물 1933호(31.5%), 채소 907호(14.8%), 가공·유통 325호(5.3%), 과수 301호(4.9%), 화훼·기타 175호(2.9%) 순이었다.

축산 분야는 한우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 증가와 사육 규모 확대로 1억원 이상 소득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2021년

1254호에서 2022년 1396호로 142호(11%) 증가했다.

사육 규모는 2021년 59만2000마리에서 2022년 62만3000마리로 3만1000마리(5%) 늘었다.

시설채소 분야에선 딸기, 파프리카 등의 가격 상승과 수출 확대가 주요인으로 파악됐고, 농산물 가공과 인터넷 쇼핑몰 판매 확대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시·군은 해남군이 753호(1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흥군 632호(10.3%), 강진군 589호(9.6%), 영광군

499호(8.1%), 나주시 478호(7.8%) 순이었다.

소득 구간별 분포에선 1억원~2억원 미만 농가가 4418호(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억~3억원 미만 887호(14.4%), 3억~5억원 미만 495호(8.1%) 순이었다. 10억원 이상 농가도 130호나 됐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물가, 경기침체 속에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6140호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스마트

농장 확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확대 등 생산비 절감과 아열대 고소득 과수 작목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억원 이상 농가의 성공사례를 신규 취농하는 청년농, 귀농인에게 전파하고 현장 실습교육 강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소득 1억원 이상 농가는 전남도가 매년 12월 읍·면·동별로 조사받을 편성해 농가별 경영 규모를 파악하고 농가 면접, 소득 자료집 등을 활용해 조사한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전남도,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예방교육 강사 위촉

전남도는 8일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예방교육 강사 및 상담사를 위촉하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디지털 생활을 위한 교육 활동에 본격 나섰다. (사진)

위촉된 강사와 상담사 24명은 인터넷 중독 전문교육과 상담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실무경력 등을 갖춘 전문인력이다.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위촉강사와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적시스템 직무 교육도 진행했다.

강사와 상담사는 앞으로 22개 시·군의 유아부터 성인까지 인터넷과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 교육을 하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가정은 직접 방문해 자기 조절 능력

향상과 바른 사용 습관 형성을 돕는다.

최근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용자 중 24.2%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가 교육강사와 상담사 위촉해 도민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디지털 생활 방법 제시에 나선 것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거나 기타 문의는 전남스마트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61-642-1971~3)로 연락하면 된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확대

5000쌍에 각 2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 완화를 통해 지역 유입과 정착을 촉진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남도가 2021년부터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부터 도내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대비 12억원 증액해 부부 5000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2022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된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 이내에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59억원 투입

광주시는 올해 총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회적기업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28개 사회적기업 363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 지역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1인당 지원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종류별

지원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중 예비사회적기업은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은 1~3년차 각 40%를 지원하며, 취약계층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지원율 20~30%를 추가해 70%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달 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한 사전검증을 마쳤다.

선정 심사는 오는 13~14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며, 최종 선정 기업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박상지 기자



클로렐라 농법 재배 지산딸기 수확

지산딸기는 일반 딸기보다 당도가 높고 과육도 단단하게 특징이다.

8일 광주 북구 건국동의 한 지산딸기 재배하우스에서 작목회원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클로렐라 농법으로 재배한 지산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공 안착”... 지역 복지·보건의료계 맞손

건보공단·사회복지협·의사회 등 13개 민간·공공기관 업무협약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지역 복지·보건의료계 주요 기관과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13개 민간단체·공공기관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복지와 보건의료계 주요 기관·단체 13곳이 참여하는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시작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들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홍보와

추가 지원 방안 모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옥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은 “돌봄이 필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신청했지만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는 노인들이 광주에만 6000여 명에 이른다. 실직·부상으로 갑자기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하다”며 “정부지원망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을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먼저 연계,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용선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복지일꾼들이 위기가정을 찾아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라는 안전망을 하나 더 구축함에 따라 돌봄의 빈틈이 메워질길 바란다”며 “돌봄 최일선에 서있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성공할 수 없다. 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행정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민선 8기 복지분야 1호 공약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오는 4월 본격 시작한다.

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박상지 기자

김 지사 “신안 어업인 해상풍력 조성 촉구 환영”

“수산업과 상생·일자리 창출로 세계적 해상풍력 중심지 육성”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신안 10개 어업인단체의 전국 최초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 발표와 관련해 8일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신안 해상풍력을 수산업과 상생, 일자리 창출, 세계적 해상풍력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지난 2일 어업

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단지의 신속한 추진과 합리적 보상 방안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인 주민수용성 확보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안 해상풍력 8.2GW(기가와트) 조성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양질의 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3000억원의 주민소득 창출과 어민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어업인과 함께 공존

하는 수산업 상생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안 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통한 해상풍력 전력계통 확보를 비롯해 주민 수용성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항만 조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해상풍력 터빈 기업을 유치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제도를 정착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며 “신안 이 세계적 해상풍력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